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交友論) 판본과 전승에 관한 소고(小考)*

김기훈**

초록 문헌학적으로 『교우론』(交友論) 출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국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마테오 리치가 남창(南昌) 체류 중에 건안왕(建安王)의 요청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수기본 형태의 ‘초고’(c.1595-1599). 다음으로, 북경에서의 공식 출판(c.1601-1606). 끝으로, 이지조(李之藻, 1564/5-1630)가 편찬한 『천학초합』(天學初函) 수록 판본(1629). 그런데 이 셋 가운데 서학 관련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천학초합』 판본만이 편향적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교우론』 판본별 제목과 출판 형식 등을 우선 간략히 비교·검토했다.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교우론』 문헌 전승과 판본 비교의 중요성과 의의를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적어도 서학과 관련된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문헌 전승사가 반영된 갱신된 『교우론』 편집본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테오 리치가 출판 과정에 관여하고 예수회가 공식 인준한 BNC 판본에 근거하여 좀 더 면밀한 교차 참조와 세밀한 사정(査定) 작업을 통해 나오게 될 『교우론』 비판 편집본은 마테오 리치를 통한 서양 문명의 영향사, 동양 수용사 검토와 연구에도, 수세기 동안 미세하게나마 오해되거나 오독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데에도 작지만 긴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와 원천/유사 전거 장치(apparatus fontium/similium)를 갖춘 한한(漢韓) 대역본 혹은 한한(漢韓)-이한(伊韓) 대역본 형태의 연구 번역서는 『교우론』의 복잡다단한 문헌 전승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나 연구자에게 더 적합하고 학문적으로도 더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마테오 리치, 『교우론』, 예수회, 고전 문헌학, 비판 편집본, 『천학초합』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698).

이 글은 2022년 9월 7-9일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Università di Pisa)에서 열린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oma Sinica Studies에서 발표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 보완한 것이다.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짧은 머리말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交友論)은 명나라 말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를 잘 보여주는 초기 사례이다.¹ 우정에 관한 격언이나 지침을 담고 있는 이 저술은 16세기 말 이래로 동아시아 유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우론』을 통해 사회관계에 대한 서양식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중국에 선보이게 되었고, 그리스도교나 서학(西學, xixue)이 서서히 세를 얻고 있던 동시대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소개되었다. 우리 학계의 『교우론』의 영향사 혹은 수용사 연구가 주목해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이 17세기 이래 조선왕조 지식인들, 특히 실학자들에게 무척이나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친구는 또 다른 나”라든지, “친구는 나의 반쪽”(이상, 『교우론』 1문[文] 참조) 등의 상투구가 오늘날 한국인에게 철학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마테오 리치 등의 이름을 떠올릴 필요도 없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인 듯하다. 동서 문명 교류가 본격화된 이래로 서양 문명에서 연원한 우정에 관한 몇몇 관념들은 이미 ‘우리’ 전통의 일부가 되어 버렸거나 적절히 융화된 탓에, 어떤 생각들이 동아시아 문화에 고유한 것이고 어떤 관념들이 서양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비롯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대략적인 수용사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구체적인 양상을 개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드러날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에 대한 서지학적, 문헌학적 검토는 그런 점에서 긴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교우론』 전승과 관련해 간과되어 온 판본 문제를 간략히 검토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교우론』(交友論) 판본과 전승의 층위²

요컨대, 『교우론』 출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국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마테오 리치가 남창(南昌) 체류 중에 건안왕(建安王)의 요청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수기본 형태의 ‘초고’(c.1595-1599). 다음으로 북경에서의 공식 출판(c.1601-1606). 끝으로, 이지조(李之藻, 1564/5-1630)가 편찬한 『천학초합(天學初函)』에 수록된 판본(1629)이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 서학 관련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천학초합』 판본만이 편향적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교우론』의 판본별 제목과 출판 형식 등을 우선 간략히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³ 이는 그간 국내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교우론』 문헌 전승과 판본 비교의 중요성과 의의를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1. BL 판본(codex BL: British Library Add. Ms. 8803)

영국 국립 도서관 필사본(통상 BL로 약칭)은 마테오 리치가 1595년 남창(南昌)에서 건안왕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초고’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마테오 리치의 육필 기록이기에 말 그대로 수기본(手記本, manuscript)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판본이다. 공식 출판되지는 않았던 이 문헌은 이후 중국 현지 지인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마테오 리치가 1599년 8월 15일에 지롤라모 코스타(Girolamo Costa)에게 보낸 편지⁴에서 그 자신이 넌지시 증언하고 있다. 1595년에 초

2 판본 전승과 관련된 논의는 Filippo Mignini (2005)와 Timothy Billings (2009)에 주로 기반한 것이다. 그 근거는 조금 더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BNC 사본이 연구 및 번역의 일차적인 저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두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3 이하에서 논의되는 주요 판본에 관한 논의는 Mignini (2005), pp. 28-34, Billings (2009), pp. 13-15; 143-147, 李爽學, 林熙強(2014), pp. 7-9를 주로 참고해 정리한 것이다.

4 cf. Billings (2009), pp. 8-9.

고가 작성되어 그 세기말까지 비공식적으로 필사, 회람된 이 문헌은 마테오 리치 본인이 덧붙인 서문(prooemio)과 간기(刊記) 정보를 담고 있는 발문(跋文, epilogo)을 제외하고 총 76개의 명문(名文, sentenza)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판본의 『교우론』이 오늘날 편집, 출간될 때에는 통상 78문(文)으로 번호 매김되는 것이 관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BL 판본이 마테오 리치가 친필로 남긴 이탈리아어 번역본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육필 번역본은 앞서 언급한 지롤라모 코스타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랫동안 유실되었던 것이 금세기 초에 영국 국립 도서관에서 [재]발굴되었다.⁵

이로 인해 『교우론』 문헌 전승 그리고 출판과 관련해 이 수기본 초고는 중요한 검토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선, 마테오 리치가 중국어/한자로 집필한 원초(原初)에 가까운 기록을 담고 있기에 이후 판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BL 판본은 문헌학적 중요성을 가진다. 초고 이후의 판본과 비교해 보면, 마테오 리치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감했는지 그 흔적을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 판본들과의 사정(査定, recensio) 작업이 요긴하다.

둘째, BL 판본은 마테오 리치 자신의 이탈리아어 번역을 보전하고 있어서 저자 자신이 남긴 중국어/한자 원문을 어떤 의도로 저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셈이다. 특히, 마테오 리치의 한어(漢伊) 대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서학 문헌 연구자들에게 난관이기도 한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한문 구사 능력과 실재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과제가 될 BL 판본 내의 마테오 리치 한어(漢伊) 대역 비교·분석은 16세기 이래 서학 문헌 교류사에서 작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교우론』은 그간 『천학초합』 수록 판본을 위시해 100문(文) 출간본만 주목받아 왔고 본문 해석 역시 이를 중심으로 답습되었기 때문이

— www.kci.go.kr

5 cf. Billings (2009), pp. 13-15.

다. BL 판본에 남긴 마테오 리치의 이탈리아어 번역은 『교우론』 전체의 내용 해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간 국내 학계에 출간된 번역서나 연구 자료 역시 이를 토대로 할 때 한결 다층적인 『교우론』 수용사를 이어 쓸 수 있을 것이다.

2.2. BNC 판본(codex BNC: Biblioteca nazionale centrale, 72C467)

이 판본은 북경에서 1601년에서 1606년 사이에 ‘공식’ 출판된 것이다. 풍응경(憑應京, 1555-1606)이 덧붙인 서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문헌은 애초에는 마테오 리치의 승인 없이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적어도 1606년 이래로— 예수회의 출판 허가 인장이 권말 간기에 찍힌 상태로 출간되었다. 그런 까닭에 최근 학계에서는 BNC 판본을 준거 판본, 공식 출간본으로 삼고 있다. BNC 판본은, 공식적인 출판을 준비하면서 『교우론』의 초고—다시 말해 BL 판본—를 마테오 리치가 보완한 것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래서 이 판본은 저자 본인이 24문(文)을 추가해 총 100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고와 마찬가지로 저자 자신의 서문과 발문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인된 출판본인 셈인데 의아하게도 국내 학계에서는 이 판본이 그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BNC 판본과 마찬가지로 17세기 초 출간본으로 대체로 한 갈래로 분류되는 판본이 두 종류 전해 온다. 통칭 BAV와 BNF로 약칭되는 두 판본⁶은 예수회 공식 인가 출판본인 BNC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북경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특징은 BNC 판본과 달리 본

6 BAV: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R. G. Oriente III,233 (9); Borg. Cin. 324 (10); Borg. Cin. 512 (4). 이상 세 사본은 중국어 본문에 오식이나 탈자가 담긴 것 외에는 큰 틀에서는 한 갈래로 분류된다. BNF: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Chinois 3371. 이 사본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상 두 갈래의 사본이 비유컨대 ‘해적판’ 혹은 사전 유출본인 셈이다.

문에 표점(標點)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후대에 널리 '통용'된 『천학초합』의 본문과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번역본들이 영인본(影印本) 형태로 권말에 부록으로 실고 있는 판본은 『천학초합』 혹은 BAV 판본이다.⁷ 그중에서 후자가 일종의 권위를 얻고 있는 것은 소장처가 바티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회 당국의 출판 허가나 마테오 리치의 승인 없이 간행된 것이기에 가치를 달리 매겨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해적판(海賊版, Bootleg)이거나 사전 유출본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다. 다만 문헌학적으로 여전히 BAV 판본 계열을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천학초합』 수록본이나 여타 발췌, 인용 선집으로 『교우론』이 주로 읽혔기 때문이다. 17세기 이래로 『교우론』이 동아시아 식자들에게 향유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이 판본 계열을 경로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어도 국내 학계에서 통상 『교우론』 본문으로 통용되는 것은 BAV 판본, 혹은 이하에서 간략히 부연 설명된 『천학초합』 수록본에 담긴 편집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세 서양 선교사들이 저술하거나 번역한 한문 저작들은, 저자가 역자들이 그 표현에 얼마일 것이 아니라 뜻을 잘 파악해 달라는 일종의 당부를 남기곤 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현지의 조력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이 협력자들이 원저자의 번역/저술을 윤색하거나 교정, 감수해 주곤 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저작에 개입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본래의 문언(文言)을 이해하거나 오해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동서 교류사를 연구하는 서학, 중국학 전문가들의 고된 과업일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은 그중 각별한 사례 연구 대상이다. 그 이유는 공식 인가 출간본과 이른바 통용본의 간극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BAV 판본 계열의 것은 마테오 리치가 출판에 직접 관여한 BNC 판본과는 별개의 문헌 갈래를 갖고 있다. 추정하건대, BAV 판본이

7 송영배(2000) 번역본과 노용필(2017) 번역본이 전자에 해당하고, 정민(2023)의 최근 번역본은 BAV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 당대에 널리 유통되어 이후 『천학초합』 수록본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테오 리치가 그것을 용인했는지, 본문 편집 사정이 전통적인 한문 구문론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BAV 판본은 문헌 전승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후 『교우론』의 이해 혹은 오해의 수용사에서 주류 매체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BNC 사본이 이 대목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최초의 ‘공식’ 출판 과정에서 마테오 리치가 출판 서지 사항, 본문 표점(標點)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난 후 예수회의 출판 인가까지 거쳤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 마테오 리치 자신의 저술 의도, 구문 독해 방식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 BNC 사본인 셈이다. 따라서 만일 『교우론』을 비판 편집본(editio critica) 형태로 출간하고자 한다면, 준거 자료로 우선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BNC 사본이다. 예를 들어 마테오 리치가 공식 출간한 본문 사정은 이러저러한데, 이후 통용본으로 읽히게 된 BAV 사본 계열은 다른 방식으로 전승하고 있거나 BL 사본에서는 애초에 달리 표기된 것을 마테오 리치가 공식 출판물인 BNC에서 고쳐 읽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 혹은 교감주(校勘註)에 보고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BNC 판본의 문헌학적·역사적 권위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우론』 수용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천학초합』(天學初函) 수록본: the incorporated edition in the TXCH:

Tianxue chuhan 天學初函 (1629)

이지조는 서학(西學) 관련 문헌들을 하나의 총서(叢書)로 간행하는데, 이 『천학초합』(天學初函)에는 『교우론』도 포함되어 있다. 『천학초합』이 출간된 것은 1629년으로 마테오 리치 사후 19년이 되던 해였다. 이 『천학초합』에 담긴 『교우론』은 마테오 리치가 쓴 100문의 본문과 서문, 발문 외에 풍응경과 구태소(瞿太素, 1549-1611?)의 서문을 추가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출판 형

식 면에서는 BNC 판본과 결을 같이하지만, 『천학초함』 판본에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편찬자인 이지조가 『교우론』 본문을 일부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교우론』이 널리 읽히게 된 계기를 이 『천학초함』이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서학 연구자들에게도 유독 『천학초함』 판본만이 눈길을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우론』 연구에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천학초함』 판본이 독보적인 권위를 누려왔다는 점이 이색적이다.⁸ 물론, 17세기 이래로 한반도 지식인 계층에서 『교우론』이 탐독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천학초함』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앞에서 문헌 전승사를 간략히 정리하며 소개했던 BAV 판본이 이 『천학초함』 수록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한 번 더 짚어두며, 후속 연구를 통해 조금 더 훑아보기를 기약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주요 판본 각각이 작품 제목이나 출판 형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L	BNC	THCH
제목·서두	答 建安王 乾齋子 友論引	答建安王 即乾齋子 友論 大西洋耶蘇會士利瑪竇述	交友論 歐邏巴人利 瑪竇譯
명문 수	76 (78)	100	100
이탈리아어 번역 유무	○	×	×

우선, BL 판본과 BNC 판본은 “答 建安王”(건안왕께 답하여)이라는 제목 서두의 표현을 보존하고 있는 데 반해 『천학초함』 판본은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교우론』을 읽게 될 독자가 이내 곧 마테오 리치의 서문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건안왕의 요청에 답하여 저술된 것임을

8 2000년 우리말 첫 번역본이 나온 이래 현재까지 3종의 번역서가 출간되었지만, 대체로 번역 대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천학초함』 판본 계열이었다. 반면, BNC 판본의 문헌학적, 서지학적 가치는 외면 받아온 셈이다.

알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저술 동기와 목적을 마테오 리치가 압축적으로 표현한 작품 서두의 문구를 『친학초함』의 편찬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해 편집했다. 다음으로, 『친학초함』 판본만이 제목에 “交”라는 글자를 더해 출간한 탓 혹은 덕에 “교우론”이라는 제목이 통용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마테오 리치 살아생전에 출간된 『우론』(友論)이 17세기 초 그 수용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목마저 변형되어 통용되었는지도 살펴볼 만한 문제인 듯하다. 그 세부적인 배경은 더욱 면밀한 문헌 수용사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해명될 것이다.

아울러, 마테오 리치가 자신을 저자로 명기하고 있는 부분의 표현도 차이를 보이는데, 공식 출간본인 BNC 판본에서는 “대서양 예수회 수사[大西洋耶穌會士]”라는 수식어를 성명에 덧붙이고 있고 述로써 저술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BL 판본은 공식 출간본이 아닌 데다가, 문헌 자료 자체가 편지에 동봉된 수기본 형태라서 별도의 서지사항 표시 없이 “우론 서문[友論 引]”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친학초함』 수록본에는 저자 마테오 리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유럽 사람[歐羅巴人]⁹이 자리해 있고 『교우론』을 저술한 행위를 撰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도 있으나, 초고를 왕에게 헌정하고 다시 공식 출판하기까지 저자와 그의 지인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령, 예수회 출판 인가를 받고 공식 출판하는 수사(修士)의 입장에서는 출신 지역과 소속을 그 나름의 격식에 맞추고자 했던 것이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마테오 리치를 다만 유럽에서 온 인물로 소개한 것이다. 직접적인 동기를 규명하는 일은 일정 정도 추정의 몫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판 서지 사항과 관련

9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 통용되는 표현 구라파(歐羅巴)와는 한자가 다르다. BAV 판본과 『친학초함』 수록본 모두 羅가 아닌 邏로 전하고 있다. 우리말 번역본 3종 중에서는 송영배(2000), 정민(2023)은 번역본에 羅로 표기하고 있으며 노용필(2017)은 이 부분의 번역은 생략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리스쉘(李爽學)와 린시창(林熙強)의 주석(2014) 역시도 『친학초함』을 본문 편집의 근거로 삼고 있어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해서는 각 판본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엄연히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우론(友論)이 교우론(交友論)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답서라는 형식의, 일종의 부제가 삭제된 계기는 무엇인지, 저자 마테오 리치를 지칭하는 표현, 저술 행위로서 술(述)과 찬(撰)의 차이 등은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유의미한 문헌학적 차이를 지적하고 보고하는 것까지만 이 글의 몫으로 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세 판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 간략히 정리한 바 있듯이 저자 자신이 본문을 추가하거나 다소 수정한 대목들에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BNC 판본이 『교우론』 문헌 연구, 수용사 연구의 일종의 준거라 할 수 있다. 이 판본을 토대로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를 갖추 각 판본 사이의 차이를 일별할 만한 편집본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우론』의 문헌 전승사를 일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판 편집본(*editio critica*)은 『교우론』의 저자-편찬자 문제, 본문 독해의 갈래를 구분하는 데 긴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요컨대, BNC 판본에 의거한 『교우론』 문헌 편집은 문헌/작가의 권위/진본성(*authority-authenticity*)의 층(*strata*)과 결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선행 과제인 셈이다. 그 몇 가지 층위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마테오 리치의 ‘우정에 관한 고전 전거에 관한 초기 착상’(Matteo Ricci’s, as it were, *inventio prima locorum de amicitia*, 1595)
 - BL 판본의 한자 본문과 마테오 리치 본인의 이탈리아어 번역 비교, 76문으로 이루어진 본문 전체 검토.
- 2) 정식 출판 과정에서 초고에 대한 마테오 리치의 가필(Matteo Ricci’s *afterthought on the first draft and the supplement for publishing*, 1601)
 - 마테오 리치가 추가한 24문¹⁰ 분석, BL 판본에서 마테오 리치가

— www.kci.go.kr
 10 14, 17, 38, 60, 64, 71-75, 78, 83-94, 97문이 추가되었고, 70문 이하 97문까지는 애초에

일부 수정한 한자 본문 비교.

3) 마테오 리치 사후 BAV 사본에 근거한 이지조의 편집(After Matteo Ricci's decease, Li Zhizao's slight(?) revision on the basis of the codex BAV, 1629)

- BNC 판본 본문과 마테오 리치 사후 이지조가 BAV 판본에 의거하여 『교우론』 본문을 다소(?) 수정한 대목 비교, 작품 전체 제목·서두의 변화 검토.

이와 같은 문헌 전승 사정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교우론』의 비판 편집본을 통해 우리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은, 저자 마테오 리치가 저술 과정에서 가지게 된 생각, 그 가운데 살아생전에 유지된 것들과 바뀌게 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 판본을 비교(collatio), 사정(査定, recensio)하는 과정을 통해 어쩌면 그간 잊혀졌거나 등한시되었던 『교우론』의 전승사를 조금이나마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통상적인 논의 순서라면 국내 선행 연구와 번역 사례를 이 글 서두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했겠지만, 『교우론』의 판본별 특징을 일별하고 문헌 전승 연구의 문제를 우선 되짚어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였기에 국내 선행 연구 사례들을 이제 비로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몇몇 한국학 연구자들이 『교우론』 관련 연구 결과를 우리 학계에 내놓은 바 있는데, 그 상당수가 대체로 조선 시대 수용사와 영향사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주요 선행 연구나 해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BL 판본에 있던 문장들의 순서도 다소 달라졌다. 마테오 리치가 총 24개의 본문을 추가 하면서 초고의 본문 순서도 후반부에는 조정된 것이다. 100문 편집본 기준으로 95, 82, 81, 80, 96, 79, 77, 76문은 BL 판본에서 각각 67-74문에 해당한다. 본문 추가, 순서 조정에 대해서는 저자가 남긴 별도의 기록이 없기에 그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 김명호(2011), 「燕巖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 -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pp. 265-288.
- 배주연(2016), 「마테오 리치 『교우론(交友論)』과 한·중에서의 반향(反響)」, 『비교문학』 70, 한국비교문학회, pp. 119-142.
- 노용필(2017), 「李晔光·李瀾의 利瑪竇《交友論》受容 樣相 比較 檢討」, 『중앙사론』 70, 중앙사학연구소, pp. 87-133.
- 이홍식(2017),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交友論)』」, 『한국실학연구』 70, 한국실학회, pp. 119-142.
- 배주연(2020), 『『교우론(交友論)』』,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1』(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단 편), 파주: 경인문화사, pp. 24-44.
- 신정근(2022), 「군자지교(君子之交)에서 월경지교(越境之交)로 - 동아시아 우정론 전개 양상 II」,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pp. 213-237.
- 마테오 리치(2000), 송영배 역주, 『교우론(交友論)·스물다섯 마디 잠언(二十五言)·기인십편(畸人十篇): 연구와 번역』, 송영배 역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마테오 리치(2017), 노용필 엮음, 『벗은 제2의 나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 서울: 어진이.
- 마테오 리치·마르티노 마르티니(2023), 정민 역주, 『서양 선비, 우정을 논하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마르티노 마르티니의 《구우편》』, 서울: 김영사.
- 히라카와 스케히로(2002), 노영희 옮김,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서울: 동아시아.

이 중에서 배주연(2016/2020)과 노용필(2017)만이 판본에 대해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말하자면, 국내 학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천학초합』에 수록된 『교우론』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우리말로 출간되어 있는 두 종의 번역본 역시 그 저본을 『천학초합』 본에 두고 있다는 점은 그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정민(2023)의 새 번역본은 『교우론』 판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번역 본문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명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권말 부록에 영인본 형태로 함께 출간한 BAV 판본을 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BL 사본-BNC 판본-BAV/『천학초합』 판본 셋 사이의 문헌학적 관계나 본문 특징에 대해서 아울러 비교, 분석한 부분이 없는 점은 아쉽다.¹¹ 그럼에도 『교우론』의 근간이 된 서양 고중세 고전의 원출처—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하에 짚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를 세세히 짚어 준 역주 작업, 『교우론』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수용된 양상과 그 의의를 병세의식(併世意識)으로 평가한 영향사 서술은 『교우론』 연구자들에게 아주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우리말로 『교우론』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있다.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祐弘, 2002)의 방대한 연구서인데, 『교우론』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목¹² 중 저자가 직접 본문을 번역하고 마테오 리치의 이탈리아어를 참고해 짚막하게 주석도 덧붙여 해설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총 76문 『교우론』을 번역해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우론』이 『천학초합』에 수록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번역문 구성과

11 예컨대, 본문 해석에서 BNC 판본에 마테오 리치가 남긴 표점(標點)은 전혀 반영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듯하고, BL 사본에 포함된 마테오 리치의 이탈리아어 번역도 우리말 번역이나 주석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 우리말 번역서 기준으로 264-305쪽이 『교우론』과 직결된 서술을 담고 있는데 그중 267-300쪽에 일본어 번역과 해설이 우리말로 번역돼 있다.

체계는 앞서 살펴본 BL 판본에 의거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우리말 번역서가 대본으로 삼고 있는 원 저서의 출간연도가 1997년임을 감안하면 히라카와의 번역은 BL 판본이 아닐 공산이 커 보인다. 이하에서 소개하겠지만, BL 판본이 [재]발굴되어 『교우론』 연구사에 새 장을 열기까지는 다른 문헌 자료가 마테오 리치의 친필 수기본으로 오해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우론』 연구사에서 주목해야 할 두 종의 선행 연구가 있는데, 양자 모두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것이다.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asquale Maria D'Elia (1952), "Il "Trattato sull'amicizia". Primo libro scritto in cinese da Matteo Ricci S.I. (1595). Testo cinese, traduzione antica (Ricci) e moderna (D'Elia). Fonti, introduzione e note." *Studia Missionalia* 7, pp. 425-515.

Filippo Mignini (Ed.) (2005), *Matteo Ricci: Dell'amicizia*. Macerata: Quodlibet, 2005.

델리아(1952)의 연구는 여전히 권위를 지닌 주요 참조 문헌인데, 『교우론』에 담긴 명문들의 원출처(fontes)에 주목한 최초의 시도였고 마테오 리치가 우정에 관해 갖고 있던 기억의 보고(寶庫)를 발굴해냈다. 저자 마테오 리치가 기억에 의존해 저술한 『교우론』 상당수의 문장들은 이제 일종의 명언 경구 선집(commonplace book)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ententiae et Exempla ex probatissimis quibusque scriptoribus collecta et per locos communes digesta per Andream Eborensem Lusitanum, et, ne oneroso volumine gravaretur lector, totum opus in duos divisum est tomos, quorum alter Sententias, alter Exempla refert. Paris: Nicolaus Nivellius, 1590.

이 상당히 길고 상세한 제목과 서지사항을 가진 명문 자료집의 저자는

안드레아스 에보렌시스(포르투갈명 André de Resende[안드레 드 헤젠드], 1498-1573)로 그가 편찬한 이 책자(통상 AE로 약칭됨)는 당대 상당히 잘 팔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리아가 밝혀냈듯이, 마테오 리치가 『교우론』에 담은 우정에 관한 지침이나 지혜는 대부분 안드레아스 에보렌시스의 선집에서 발췌된 것으로 이 선집에는 고전·고대 저명한 저술가들의 작품에서 선별해낸 다양한 주제와 명문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날 독자는 『교우론』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플루타르코스 같은 이들이 우정에 관해 생각하고 저술했던 것들을 음미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텔리아는 마테오 리치가 직접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수기본(BL 판본)을 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그 문헌이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19세기 이래로 어떤 편지 한 통이 마테오 리치의 수기본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오랫동안 진본으로 여겨져 온 문제의 사본(apograph)¹³은 BL 판본의 친필본(autograph)을 수정한 것으로 좀 더 매끄러운 이탈리아어로 다듬고 중국어에서 비롯한 어색한 번역을 손본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위조본은 『교우론』에 담긴 ‘우정론’ 층위 면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층위를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대 저술가들, ② 안드레아스 에보렌시스 선집(AE),
- ③ BL 판본의 한자 본문, ④ BL 판본 본문에 대한 마테오 리치의 이탈리아어 번역,
- ⑤ 마테오 리치 번역에 대한 익명의 가필¹⁴

한편, 2005년에 출간된 미니니의 편집본은 『교우론』 연구에서 가장 요

13 [A]PUG: Archivio dell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Ms. 292, pp. 189-200.

14 우리말 번역서에 참고문헌이 누락되어 있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히라카와(2022)가 번역 대본으로 삼은 것이 이 위조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 문서를 진본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cf. Shelke & Demichele (2010), pp. 48-49.

긴한 것으로, 그는 리빙쿠이(李炳奎)와 함께 BNC 판본의 『교우론』 본문을 현대 이탈리아어로 번역했다. 아울러, 그의 편집본에는 마테오 리치가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BL 판본(라우라 누볼로니[Laura Nuvoloni] 편집) 그리고 앞서 언급한 위조본 역시 수록돼 있다. 여기에 더해 미니니 편집본에는, 소피아 마테이(Sofia Mattei)가 책임 편집한 방대한 양의 원출처 연구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드레아스 에보렌시스 선집(AE)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 고전·고대 저술가들의 원전도 상세하게 그 전거로 제시되어 있다. 마테오 리치의 이탈리아어 친필 번역본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후 출간된 미니니의 편집본은 이제 『교우론』 연구에서 자주 조회되는 자료이다. 하지만 이 편집본에서는 BNC 판본의 한자 본문을 전사(轉寫)하여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본문 독해를 위한 비판 장치 역시 미비하다. 엄밀히 말해 비판 편집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니니 편집본은 여전히 『교우론』 연구에서 토대 구실을 하고 있다.¹⁵

『교우론』 작품 전체가 온전히 영어로 번역된 것은 2009년 티머시 빌링스의 출판본¹⁶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그의 번역은 앞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본 『교우론』 판본 비교, 문헌 본문 비평과 검토에 기반한 것이다. 한영(漢英) 대역본으로 출간된 이 책자는 비판 장치 대신에 일종의 비판 부록(appendix critica)을 제공한다. 빌링스는 BNC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 주로 BL 판본과 『천학초합』 본을 비교해 『교우론』 본문을 편집했다. 출간된 이래로 지난 10여 년 그의 번역본은 마테오 리치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리스췌(李奭學)와 린

15 Nina Jocher (2005)의 독일어 번역은 미니니 편집본에 수록된 마테오 리치의 BL 판본 이탈리아 번역을 독일어로 옮긴 것이어서 총 76문으로 구성돼 있다. Philippe Che (2006)의 프랑스어 번역은 총 100문 구성으로 주로 BNC에 근거한 번역인 듯하지만, 문헌학적으로 치밀해 보이지는 않는다.

16 Timothy Billings (Tr.) (2009), *Matteo Ricci, On Friendship 交友論: One Hundred Maxims for a Chinese Pri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시창(林熙強)의 주석(2014)¹⁷인데, 동아시아에서 출간된 『교우론』 연구서 중에서는 가장 탁월해 보인다. 이는 광하오(方豪, 1910-1980)가 남긴 선행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세밀한 원출처 논의, 동양 고전과의 비교 등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교우론』을 조망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지만 판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논의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천학초함』 분을 본문 해독의 저본으로 삼고 있어서 마테오 리치의 초고, 공식 출간본의 수정, 보완 사정을 세세히 헤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정민(2023)의 『교우론』 새 번역본은 이와 같은 기존의 성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글 역시 그와 같은 진전에 힘입어 『교우론』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인 방향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맺음말: 『교우론』 비판 편집본의 필요성

『교우론』이 조선 후기 한반도 지식인들에게 얼마나 각광 받고 애독되었는지는 최근 우리 학계 연구들이 속속 밝혀 주고 있다. 그와 함께 마테오 리치와 서양 고전의 영향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읽어 온 『교우론』이 어떤 문헌학적, 역사적 맥락(context)으로 직조된 저술(text)인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듯하다. 다소 복잡한 출판, 전승 과정을 되짚어 보면, 조금 더 치밀하게 이 문헌을 읽을 필요가 있다. 『교우론』에 덮인 더께를 걷어내면 크게 세 층위의 시간대를 구분해 그 간기(刊記)를 간추릴 수 있다. 우선 저술 배경을 염두에 두자면, 군왕의 연회에 초대받은 마테오 리치가 기억 혹은 기록에 의존해 우도(友道)에 관해 몇 마디 시작한 논의가 현정본 형태의 초고가 되어 일단락되었던 때(c.1595-1599)

17 李爽學, 林熙強 主編(2014), 《晚明天主教翻譯文學箋注》(全四卷), 臺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그중 권1이 『교우론』 주석과 해제를 담고 있다.

가 그 시초가 될 것이다. 이 76문 구성의 『교우론』 초고(BL 판본)가 중국 현지 지인들에게 꽤나 회자되어 연회가 있고 난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자는 이를 조금 더 증보하여 출판할 준비를 했다. 그러던 차에 사전에 마테오 리치의 허락 없이 지인들이 북경에서 펴낸 일종의 해적판(BAV 판본 계열)이 시중에 나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윽고 예수회의 인준을 받은 판본(BNC 판본)이 그 무렵에 북경에서 공식 출판되었다(c.1601-1606). 이후에도 『교우론』은 많은 이들에게 애독되었는데, 마테오 리치 사후에 『천학초합』(1629)에 수록됨으로써 서학 문헌 중 필두가 되어 읽혔다. 문제는 이 마지막 국면에서 쓰인 판본이 저자 마테오 리치의 공식 출판본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중 어떤 『교우론』을 저본(底本)으로 삼아야 할까.

가령, 한결 완고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자세로 『교우론』을 읽으려는 연구자가 있다면, 아마도 BNC 판본에 선명히 찍어 둔 마테오 리치의 표점(標點)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뜻을 헤아리려 할 것이다. 여전히 중국어/한자에 능숙하지 못했을 터이지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올 한 올 엮어낸 머릿속 명문(名文)들의 직물(織物)을 지금 여기 어느 연구자는 힘겹게 눈으로 손으로 더듬어 읽어내려 할 것이다. 그 어려움 끝에 『교우론』이 이해되고 오해되어온 역사를 조심스레 그는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제는 적어도 서학과 관련된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문헌 전승사가 반영된 갱신된 『교우론』 편집본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L 판본의 [재]발견 이후 『교우론』의 전승사 국면이 달라졌다. 면밀한 교차 참조와 세밀한 사정(査定) 작업을 통해 나오게 될 『교우론』 비판 편집본은 마테오 리치를 통한 서양 문명의 영향사, 동양 수용사 검토와 연구에도, 수세기 동안 미세하게나마 오해되거나 오독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데에도 작지만 긴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⁸ 더욱이, 비판 장

— www.kci.go.kr
18 19세기 말 동학(東學) 운동은 그리스도교와 서학(西學)에 대한 일종의 반동 혹은 반향의

치(apparatus criticus)와 원천/유사 전거 장치(apparatus fontium/similium)를 갖춘 한한(漢韓) 대역본 혹은 한한(漢韓)-이한(伊韓) 대역본 형태의 연구 번역서는 『교우론』의 복잡다단한 문헌 전승사¹⁹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나 연구자에게 더 적합하고 학문적으로도 더 유용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연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상당한 시간의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문명 교류의 경계 역할을 해 오기도 했던 우리로 인해, 커다란 역사가 조금은 다시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때로는 소소한 문헌 연구가 문명의 지류를 거슬러 올라가 원천을 가리켜 보이는(ad fontes) 일도 있으니 말이다.

참고문헌

- 김혜경(2012),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마테오 리치(2000), 송영배 역주, 『교우론(交友論)·스물다섯 마디 잠언(二十五言)·기인십편(畸人十篇): 연구와 번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마테오 리치(2017), 노용필 역음, 『벗은 제2의 나라: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 서울: 어진이.
- 마테오 리치·마르티노 마르티니(2023), 정민 역주, 『서양 선비, 우정을 논하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마르티노 마르티니의 《구우편》』, 서울: 김영사.
- 히라카와 스케히로(2002), 노영희 옮김,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의 한 갈래에서 비롯한 증산도(甞山道)에서는 마테오 리치를 대성사(大聖師)로 공경하고 있는데(『도전』(道典) 2편 30절, 4편 12-13절, 11편 124절 등 참조), 아마도 『천주실의』(天主實義)가 그러한 이해와 수용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교우론』에서 마테오 리치가 하느님(Iddio; Deu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적어도 두 곳(16문과 56문)으로 모두 상제(上帝)라는 번역어를 택하고 있다.

19 이 같은 형태의 『교우론』 비판 편집본은 그 수용사 연구에 실마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저자 마테오 리치의 의도, 기획과는 달리 어느 정도로 당대 그의 지인들이 본문과 저술 형태를 각색[하려]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울러, BAV 판본과 『천학초합』 수록본의 차이를 토대로 이지조의 개입/개선 정도를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 동아시아.

- 김명호(2011), 「燕巖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 한국고전문학회, pp. 265-288.
- 노용필(2017), 「李睟光·李瀾의 利瑪竇《交友論》受容 樣相 比較 檢討」, 『중앙사론』 70, 중앙사학연구소, pp. 87-133.
- 배주연(2016), 「마테오 리치 『교우론(交友論)』과 한·중에서의 반향(反響)」, 『비교문학』 70, 한국비교문학학회, pp. 119-142.
- 배주연(2020), 「『교우론(交友論)』」,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단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1』, 파주: 경인문화사, pp. 24-44.
- 신정근(2022), 「군자지교(君子之交)에서 월경지교(越境之交)로: 동아시아 우정론 전개 양상 II」,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pp. 213-237.
- 이흥식(2017), 「조선 후기 우정론과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交友論)』」, 『한국실학연구』 70, 한국실학회, pp. 119-142.
- 李爽學, 林熙強 主編(2014), 《晚明天主教翻譯文學箋注》(全四卷), 臺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 Billings, Timothy (Tr.) (2009), *Matteo Ricci, On Friendship 交友論: One Hundred Maxims for a Chinese Pri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e, Philippe (Tr.) (2006), *Matteo Ricci, Traité de l'amitié*. Ermenonville: Éditions Noé. (with the introduction of Michel Cartier)
- D'Elia, Pasquale Maria (1952), "Il "Trattato sull'amicizia". Primo libro scritto in cinese da Matteo Ricci S.I. (1595). Testo cinese, traduzione antica (Ricci) e moderna (D'Elia). Fonti, introduzione e note." *Studia Missionalia* 7, pp. 425-515.
- Jocher, Nina (Tr.) (2005), *Matteo Ricci: Über die Freundschaft*. Macerata: Quodlibet.
- Mignini, Filippo (Ed.) (2005), *Matteo Ricci: Dell'amicizia*, Macerata: Quodlibet.
- Shelke SJ., Christopher & Mariella Demichele (Eds.) (2010), *Matteo Ricci in China: Inculturation through Friendship and Faith*, Rome: Gregorian & Biblical Press.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5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A Short Introduction to the Codices of Matteo Ricci's *Jiaoyoulun* (交友論)

Kim, Kihoon*

The publishing of *Jiaoyoulun* consisted of three phases: first, the writing up of Matteo Ricci's own manuscript or draft as the answer to prince Jian'an (建安王) in Nanchang (c.1595-1599); second, the official publication in Beijing (c.1601-1606); finally, the incorporation of the version into the *Tianxue chuhan* (天學初函) (1629) by Li Zhizao (李之藻, 1564/5-1630). However, the *Tianxue chuhan* edition, among others, has unusually attracted one-sided attention from researchers of Koreanology or Korean Studies on *xixue* (Western Learning). In this preliminary paper, the textual significance of *Jiaoyoulun*,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s examined briefly by comparing its title and the publication forms of the codices and editions.

The critical edition of *Jiaoyoulun*, which was made available by close cross-reading and detailed recension on the basis of the codex BNC,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ew the reception and influence of Matteo Ricci, but also to identify if there have been any subtle misreadings or misunderstandings for centuries in reading *Jiaoyoulun*. Moreover, its standard form, a bilingual edition with *apparatus criticus* and *apparatus fontium/similiu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eems to be better and more worthwhile to readers and researchers for understanding a complicated history of the text of *Jiaoyoulun*.

Keywords Matteo Ricci, *Jiaoyoulun* (交友論) Jesuits, Classical Philology, Critical Edition, *Tianxue Chuhan* (天學初函)